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cademic Libraries in the U.S., U.K., Australia and Canada

윤 정 옥(Cheong-Ok Yo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 발전전략 |
| II. 주요 국가 대학도서관의 문제점 | IV.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권 주요 국가들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한 고등교육 환경변화와 문제점에 대응하여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 및 발전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들은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의 감소,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기반구조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발전전략을 갖고 있으나, 대체로 자원공유, 공동목록, 공유저장 시설, 학술정보자원의 공동협상과 구매,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변화의 측면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영어권 국가의 대학도서관, 고등교육 환경, 대학도서관 발전전략, 자원공유, 학술 커뮤니케이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cademic libraries in the U.S., U.K., Australia, and Canada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problems faced since the 1990s. Major problems, which academic libraries in various countries have commonly experienced include continuing decrease in library expenditures, changing role of libraries themselves, changing nature of library collections,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on campus, steep increase in prices of scholarly journals, and relative decrease in purchasing powers of libraries. In this study, discussed are the strategic planning and solutions carried out at the national or government level, rather than by individual libraries. Their efforts commonly focus on such measures as resource sharing, shared catalog and storage facilities, cooperative purchasing and negotiation for scholarly journals, etc.

Key Words: Academic Libraries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Higher Education Environment, Development Strategy of Academic Libraries, Resource Sharing, Scholarly Communication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06년 2월 9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3월 10일

I. 머리말

최근 국내외의 대학도서관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동철 등은 지난 1990년대 이후로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그에 따른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가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 등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에 야기한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¹⁾ 이들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주요한 환경변화와 문제점들은 크게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의 감소,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기반구조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제점들은 각 나라가 처한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동철 등의 연구²⁾에서 분석된 대학도서관들이 인식한 환경변화와 문제점에 대응하여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발전전략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이 개별 도서관의 노력으로 해결되기도 적어도 복수의 대학도서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집합적, 협력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거나,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등교육 발전의 맥락 안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시행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그 성공여부가 평가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 나라는 자국의 사정과 특성에 알맞은 방식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전략적 발전방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 주요한 사례들을 나라별로 검토하도록 한다.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대상 국가들의 고등교육 및 대학도서관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들의 보고서, 통계자료, 웹 문서 및 학술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주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문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나라가 설정한 고등교육 정책 및 목표가 변화하면서 야기된 대학도서관의 주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전략적 대책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1) 광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5.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도서관 정책 연구: 2005-6): 광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6. "선진국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2) 광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6. 전계논문.

II. 주요 국가 대학도서관의 문제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의 현황 및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한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와 대학도서관의 문제점들은 콰동철 등의 연구³⁾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표 1> 영어권 주요국가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⁴⁾

(1) 미국	(2) 영국
예산의 축소 ○ 전체 대학예산 대비 도서관 예산의 축소 ○ 학생 수 증가 vs. 예산 증가 ○ 이용자 요구의 변화 ○ 정보자원의 가격 급등	학생 집단의 성격변화 ○ 전일제 학생수의 지속적 증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 비전통적 학생(고령, 파트타임 등) 수의 증가로 부가적 혹은 구별되는 요구 증대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 매체의 다원화: 전통적 인쇄자원, 라이선스된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 "구축 콘텐츠", 월드와이드웹, 기타 디지털 자원 수용 ○ 학내 교수, 학습, 연구용 자원형태 변화	예산의 축소 ○ 계속적 긴축재정으로 교수 및 학습지원 기반구조 구축에 영향 ○ 대학의 예산규모 축소와 도서관 예산 비율 감소 ○ 이용자와 컬렉션 수용능력 제한
도서관 역할의 변화 ○ 학술분야와 프로그램의 초점과 방법 변화 ○ 교수와 학생의 인구조적 특성 및 소양의 변화 ○ 학생 수 증가 ○ 대학의 교수,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자료의 가격 상승과 도서관의 구매력 상실 ○ 학술도서와 정기간행물 가격의 지속적 급등 ○ 자료, 특히 정기간행물 생산량 증가와 가격 급등 ○ 미국의 학술자원에 대한 의문과 환율차에 따른 구매력 감소 ○ 학생 일인당 자원규모와 구매력의 실질적 감소
새로운 기술기반구조 ○ 새로운 정보기술의 계속적 수용 필요 ○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시킬 필요성 ○ 학술적 요구 충족 위한 정보기술 활용 ○ 학내의 기타 정보기반구조와 협력 ○ 재정지원 우선순위 확보 위한 경쟁	도서관의 역할 변화 ○ 정부의 고등교육 목표(대학교육의 대중화)에 따른 영향 ○ 전자학습 투자, 원격교육 학생수 증가, 산학연 파트너십 확대 ○ 전자대학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 전자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자원 및 시설의 공동이용 가능성 확대
디지털 정보자원의 접근과 보존 ○ 디지털 자원의 생성, 제어, 보존 문제 ○ 디지털화 대상 자원의 결정과 작업수행 ○ 디지털 자원용 서지 메커니즘 발전 ○ 디지털 자원용 재원의 확보	자원공유의 문제 ○ 학술정보 양의 증대와 도서관 비용의 인상으로 도서관의 포괄적 및 완전한 독자적 자원 수집능력 제한 ○ 협력 통한 심층적 자원과 서비스 공유 필요성 증대
(3) 호주	(4) 캐나다
재정지원의 축소 ○ 연방정부의 교육과 훈련투자 예산액은 지속적 증가 vs. 전체 국가예산에서 비중 감소 ○ 고등교육과 도서관에 현상유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타 문화기관과 예산 경쟁 ○ 대학의 재정 자구책 마련 요구	연속간행물 가격 급등과 구매력 감소 ○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 ○ 연속간행물의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도서관 구매력 감소 ○ 단행본 예산 축소 및 구입의 제한
정보자원의 해외의존과 구매력 감소 ○ 학술정보자원의 구미 의존도 큼	예산의 축소 ○ 캐나다 모든 수준의 정부가 재정 긴축으로 예산 축소

3) 콰동철, 윤정옥, 김기태, 2006. 전계논문.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정보 접근과 제공의 기반구조 낙후 및 경쟁력 저하 ○ 호주 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 ○ 학술정보 가격의 급등과 재정축소의 이중고로 자료 구입능력 및 서비스 지원 능력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축소로 도서관 예산에 대한 전반적 축소 경향 ○ 대학교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대학도서관은 재정 축소의 영향 직접 받음 ○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발전정책 결여로 분산된 개별기관에 재정 지원 요청 어려움
<p>정보기술과 기반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 및 기반구조의 선진성 유지로 원격교육 통한 양질의 교육 제공 요구 ○ 원격교육용 수업자료, 학습지침, 과제, 교수학생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학도서관의 선도적 역할 기대 	<p>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주무부서의 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의 제공과 발전이 각 지역과 주정부의 책임으로 대학도서관 대상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중앙의 주관부서가 없음 ○ 재정지원 관장하는 단일 중앙기관 필요성 ○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자원 배분과 공유체제 확립 및 도서관 발전정책 필요
<p>대학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학생수의 증가 ○ 국제화로 인한 해외학생 증가와 원격교육 지원 ○ 대학 서비스 성과의 평가 ○ 온라인 교수와 학습 프로그램의 증가 ○ 학내 학생지원 서비스의 통합과 도서관 포함한 구조조정 	<p>해외 정보자원에 대한 의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연속간행물 입수에 소수의 해외 상업적 출판사에 의존 ○ 대학도서관의 학술자원 대부분을 구미 출판사가 공급 ○ 미화로 가격 결정된 학술자원에 캐나다 달러 환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구매력 감소 ○ 도서관 인쇄자원의 고갈 초래
	<p>정보기술의 발전과 학술 커뮤니케이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필요 ○ 기존의 인쇄자원과 전자자원 콜렉션 동시 지원의 부담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은 크게 대학도서관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학술정보자원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의 감소, 도서관 콜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기반구조의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예산의 축소와 도서관 역할의 변화: 21세기의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에 대응하여 국가 인적 자원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각국은 고등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모두 전체 GDP에 대비한 고등교육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대학도서관은 그 같은 예산 축소의 영향을 직접적,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더욱이 호주의 경우엔 국립체제인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대학의 재정자립을 강조하면서, 대학도서관의 지원이 더욱 축소되는 경향이다.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예산 증가율은 대학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완만하고, 학내 타 기관들과의 예산 확보 경쟁 심화, 학술정보자원의 가격 급등, 학생 수의 증가와 구성원의 성격변화에 따른 시설 및 서비스 변화 요구 등의 문제와 맞물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대중화, 온라인화, 국제화 등의 추세에 따른 도서관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고, 전일 및 파트타임 학생들의 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의 증가 및 사서의 충원 어려움 등으로

4) 문제점의 열거순서가 중요도의 순위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인하여, 학생 일인 당 학술정보자원 보유량과 연간 증가율, 사서 및 서비스 시간 등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지난 1990년대 이래 급격히 증대해온 연속간행물의 가격이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되어 왔다. 축소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불해야 하는 학술정보자원의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한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종수와 양이 계속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캠퍼스 안팎에서 정보에 대한 편리한 접근을 요구하고, Elsevier, WK Health, Thomson SHC, New Springer 등과 같이 고급의 과학·기술·의학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상업출판사들⁵⁾이 이 같은 이용자들의 요구와 태도 변화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호주와 캐나다처럼 해외에 대한 학술정보자원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대학도서관 구매력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고, 연속간행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행본을 비롯한 다른 자료 입수를 전반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3)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전자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된다고 해도, 구입하고 유지해야 할 인쇄자원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지는 않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들을 균형 있게 입수, 유지, 관리, 보존하면서 접근을 제공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 인쇄자원과 더불어 새로이 도서관 컬렉션의 주요한 구성부분이 되어가는 라이선스된 디지털 컬렉션, 디지털 "구축 콘텐츠", 월드 와이드 웹, 및 기타 디지털 자원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또한 증대되고, 변화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정보기술의 발전과 기술 기반구조의 요구: 대학도서관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 비용투자 및 학내 유관기관들과 경쟁 및 협조체제를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도서관 고유의 업무와 서비스용으로 견고한 기술 기반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동시에 캠퍼스 내의 학사행정 및 학생관리 시스템 등의 기술 기반구조에 의존할 필요가 있으면서, 대학의 조직구조 내에서 완전히 독립적 운영체제를 고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 나라들에서 전자정보자원과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증대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교육시장의 상품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가 확산되어, 교수 및 학습방법의 변화, 그리고 온라인 커리큘럼의 발전, 그리고 캠퍼스 안팎에 산재한 이용자들을 지원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문제점이자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5)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4. 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Digital Broadband Content Panel and Government Discussion Session, 3 June 2004: Summary and Conclusions. 38p.

Ⅲ.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 발전전략

1. 미국

미국은 국가 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주로 개별 주(州)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⁶⁾ 또한 대학도서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도서관컨소시엄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Library Consortia, ICOLC), 기관협력위원회(Committee on Institutional Cooperation) 등과 같이 다양한 목적과 기능의 국가적 규모의 컨소시엄 혹은 협력사업 등이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나 주 단위 개별 도서관들의 협력과 이해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⁷⁾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UC)의 아홉 개 캠퍼스 도서관들이 함께 전략적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와 Duke University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후에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와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까지 합쳐 트라이앵글 연구도서관 네트워크(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 TRLN)을 구성하고 공동의 발전전략을 모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절에서는 주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추진해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하 UC라고 함) 도서관 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UC 아홉 개 캠퍼스의 도서관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학 교육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⁸⁾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예산의 축소, 학술정보의 양과 학술정보가 생산되는 포맷 종수의 증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비용 인상, 학술정보에서 증대하는 디지털 구성요소의 손쉬운 저장·조직·제공·이용·보존 및 장기적 관리를 촉진할 통합적 기술의 결여, 그 같은 정보 및 관련된 이용자 지원 서비스를 발견·검색·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속도와 용이성에 관한 이용자들의 기대치 증대,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동반하여 교수와 학생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적용할 필요성 등과 같은 것들로, 이 대학도서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대학도서관들,⁹⁾ 그리고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들이다.

6) Steele, Colin. 2000. Library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Strategic Initiatives: A Discussion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for Innovation in Scholarly Communication. <<http://www.anu.edu.au/caul/cisc/proj4final.doc>> [online] [Access 2005.10.1]

7)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A Report to the RSLP on: Barriers to Resource Sharing Among Higher Education Libraries.

8)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Systemwide Strategic Directions for Libraries and Scholarly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pared for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online] [Access 2005.8.26]

9) Brewer, Joseph M., et al. 2004. "Libraries Dealing with the Future Now." *ARL Bimonthly Report*, 234.

UC 도서관 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 1997년 버클리,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 아홉 군데에 흩어져 있는 캠퍼스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도서관 계획 및 행동 이니셔티브(Library Planning and Action Initiative, LPAI)'를 구성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21세기 대학의 교육, 연구 및 서비스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에 대해 포괄적이며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미래의 도서관 시스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의 확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디지털 미래로 전이하는 동안 UC 도서관을 인도하는 일곱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¹⁰⁾

- ①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비용 효과적 방법 추구.
- ②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을 건립.
- ③ 인쇄 컬렉션(Print Collection)을 지원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유지 및 발전.
- ④ 도서관, 박물관, 다른 대학들 및 산업과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Collaboration) 추구.
- ⑤ 네트워크 환경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학술 및 과학정보를 배포하고 접근하기 위한 요구를 지원하는 정보 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 발전.
- ⑥ 학술 및 과학 커뮤니케이션(Scholarly and Scientific Communication) 과정을 변형시키려는 국가적 노력에 핵심적 리더십 수행.
- ⑦ 지속적 계획과 혁신의 환경(Continuous Planning and Innovation) 조성.

이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UC 도서관 시스템은 공유 컬렉션 관리와 조정, 공유시설, 공유서비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속적 접근,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략적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¹¹⁾

• 공유 컬렉션 관리와 조정

UC 도서관 시스템은 모든 형태로 된 자료의 공유 컬렉션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세한 계획과 평가구조를 수립한다. 즉, 첫째, 컬렉션의 물리적 소재, 관리와 접근정책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설정한다. 둘째, 정리, 서가공간과 환경요소, 접근과 제공 서비스, 서지접근과 인벤토리 제어와 같은 기반구조의 요구조건 등에 관련된 비용과 자원요구를 확인한다. 셋째, 캠퍼스 운영, 서비스, 보존전략과 예산을 위한 관련성을 측정한다. 넷째, 영향 받는 이용자 커뮤니티와 그들의 컬렉션 이

<http://www.arl.org/news/tr/234/dealing.html> [online] [Access 2005.8.29]

10)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wide Library Planning, May 15, 2002. "The Crisis of Library Sustainability, the Opportunities of Digital Scholarly Communication,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trategy: Background Paper for the Joint Meeting of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and the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May 23, 2002." [online] [Access 2005.8.25]

<http://www.slp.ucop.edu/documents/librarycrisisbackground.doc>

11)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전계자료.

용을 확인한다. 그리고 공유 컬렉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구조에서 제공된 지침을 적용시킨다.

• 공유시설

UC 도서관 시스템은 공유하고 있는 지역도서관 시설(Regional Library Facilities, RLF)의 관리를 통합하고, 이것이 UC 도서관들의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계획과 운영에 완전히 통합되었는지를 보장한다. 또한 지역도서관 시설들의 정책, 운영 및 자원요구를 정기적으로 리뷰하여, 이것이 UC 도서관의 전략적 방향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장소의 제한, UC 자금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상황에서 재정자원의 획득가능성 등에 따른 이유로 지역도서관 시설의 지속적 확장범위가 제한됨을 인식하고, 이 불가피한 상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시작한다.

• 공유서비스

UC 도서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도서관의 전체자원을 포괄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발전시킨다. 우선, 예를 들어, 서지제어와 접근, 모든 포맷의 컬렉션의 입수, 정리와 관리와 같이 기본적인 지속적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다음 높은 수준의 이용자 서비스를 협력적으로 개발, 전개 및 지원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개념을 테스트하고, 계획을 다듬고, 우선순위를 확립하며, 자원요구와 소스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속적 접근

UC 도서관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확립된 표준 및 개방소스 관행을 준행하는 국가 및 국제적 노력과 협력하여 디지털 보존 기반구조를 발전시킨다. 그 첫째 목표는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웹 기반 정부정보와 같이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공유하는 위협에 처한 디지털 자원을 중앙에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목표는 캠퍼스 도서관들로 하여금 웹 기반 자료의 선정 컬렉션, UC 학위논문, 교수와 연구를 위해 교수들이 생산한 디지털 자료 등과 같이 자기들이 고유한 관심을 갖는 디지털 자원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보존 기반구조가 훼손되어 가는 인쇄 자료의 보존과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를 연구한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의 신뢰할 수 있는 아카이빙, 관리 및 검색에 대한 대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견고한 공용 정보기술 기반구조의 발전과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기술, 기록관리 및 디지털 콘텐츠의 보존에 책임이 있는 대학의 다른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 학술 커뮤니케이션

UC 도서관 시스템은 교수, 관리자, UC 출판부, 문헌정보학 대학원, 전국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

하여,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전면적 변형에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이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학술 레코드에 대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확고한 단계와 필요한 자원을 식별하고, 공유 서비스 모델과 더불어 발전하면서 중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협동으로 발전되는 캠퍼스에 기반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한다. 첫째, 교수들이 저작물을 혁신적으로 배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eScholarship 프로그램과 UC 출판부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확장된 출판 서비스 기반구조를 포함하여, 교수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생산하는 저작의 저작권을 관리하도록 돕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교수들에게 학술출판의 경제성과 메커니즘, 그리고 그들이 학술저작의 배포 및 UC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려주기 위한 교수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아웃리치의 방법을 제공한다. 셋째,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경제적 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도서관 콜렉션 개발과 선정 원칙의 확립과 운영상의 적용 방안을 제공한다. 넷째, 출판계와 그 생산물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대학의 지속적 계획과 개별 교수들의 출판결정에 관해 알려주도록 돕는 데 필요한 UC 도서관 운영과 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수집하기 위한 응용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다섯째, 캠퍼스 및 시스템 전체의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열심히 참여하고 해박한 교수, 도서관 사서 및 교무행정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인, 캠퍼스 및 시스템 전체의 노력을 조정 및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UC 도서관 시스템이 이와 같은 전략적 발전방향에 따라 실제로 추진한 대표적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이다. 다음과 같이 CDL을 통해 UC 시스템 아홉개 대학도서관들이 달성하고 있는 목표들은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학도서관들이 또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¹²⁾

1997년에 시작된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이하 CDL이라고 함)은 UC 시스템의 대학도서관들이 개별 캠퍼스 기반의 인쇄자료 중심 도서관 서비스 모델에서 벗어나, 인쇄정보와 디지털 정보를 혼합하고, UC 시스템 전체 도서관들이 자원과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발전시킨 대표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도서관이 직면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적 이니셔티브(the key strategic initiative for meeting the challenges facing our libraries)”¹³⁾라

12) Greenstein, Daniel. 2002. "Introduction to the California Digital Libaray."

<http://www.slp.ucop.edu/consultation/slasiac/102902/cdbrief_for_slasiac.doc> [online] [Access 2005.8.25]

고 평가되고 있다. CDL은 다음 세기에 도서관들이 성공적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확장하는 책임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가. 통합된 가상 컬렉션의 구성

UC 도서관들은 각 도서관 컬렉션의 소장정보를 하나의 종합목록 안에 통합함으로써 각 도서관의 소장자료가 방대한 단일 가상 컬렉션(virtual collection)의 일부를 구성하게 하여 접근과 이용을 촉진한다. UC 시스템 전체가 공유하는 종합목록 Melvyl® 에서는 서지정보와 소장정보를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소재한 캠퍼스에 없는 자료를 요청한 경우(Patron-Initiated Request), 상호대차로 즉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지난 10년 동안 상호대차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고, 도서관들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게 된다. 첫째, 방대한 규모의 캠퍼스 자원이 마치 단일 컬렉션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 범위가 확장되고, 요구의 충족률이 높아진다. 둘째, 각 캠퍼스 도서관이 장서개발 시 이미 시스템 안에 있는 전체 장서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른 캠퍼스에 이미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전제로 함으로써, 전체 캠퍼스 장서의 다양성과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Melvyl® 목록은 1980년대 초반에 구축된 이래, UC 도서관들의 모든 서지정보와 연속간행물 소장정보를 단일 장소에 결합해 놓았다. 2003년 현재 삼천이백만 권에 달하는 컬렉션 및 무수한 지도, 고문서, 마이크로폼, 시각, 청각 및 화상자료들로 구성된 도서관의 모든 소장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UC 컬렉션의 중심된 접근점 역할을 하였다.¹⁴⁾ 그리고 2006년 현재에는 2,500만 이상의 서지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고, UC의 열 개 캠퍼스 도서관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California State Library), 헤이스팅스 법과대학(Hasting School of Law), 캘리포니아 과학원(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 연구도서관센터(Center for Research Libraries), 캘리포니아역사학회(California Historical Society),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원(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등 캘리포니아 주의 주요 도서관 소장 자료까지 수록하고 있다.¹⁵⁾

나. 공유 디지털 컬렉션의 발전

CDL은 UC 도서관들이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공유 컬렉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단일 엔티티 역할을 한다. CDL을 통하여 UC가 공유하는 디지털 컬렉션은 2001-02년 현재 7,000여 종의 저널, 200여 초록, 색인 및 기타 데이터베이스, 그 밖의 디지털 자료들로 구성되었고, 2002-03년

13)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wide Library Planning, May 15, 2002. 전계자료.

14) University of California, May 2003a. "Report to the Collection Management Planning Group(CMPG) on Collec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 Strategy for the UC Libraries," Prepared by the CMPG Steering Committee. Draft.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online] [Access 2005,5,4]

15) <<http://melvyl.cdlib.org>>

말에는 130,000 온라인 도서, 8,000여 온라인 학술저널, 4,500 온라인 통계파일, 250여 참고 데이터베이스 및 300,000여 디지털 건축 및 시각예술 온라인 이미지 파일 등에 접근할 수 있다.¹⁶⁾

그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캠퍼스 도서관의 디지털 자원 절대 종수와 규모가 확대된다. 둘째, 상업적 전자자원의 구입비용을 매우 절감한다. 즉 전체 아홉 개의 캠퍼스가 하나의 엔티티로 협상함으로써 예를 들어 상위 11개 출판사의 2,515종 저널에 대한 접근 비용을 16,139,888달러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를 개별 캠퍼스가 구독할 경우 1년에 전체 24,354,018달러의 추가비용이 들 어갈 것이 예상되었다. 또한 13,791종의 다른 구독 저널들도 전체 57%의 할인을 받았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독에도 적용되어 전체 비용이 1,740,245달러에 달하는 프로퀘스트(ProQuest) 데이터베이스 패키지를 953,513달러 할인받고, 3년간 전 캠퍼스가 접근 비용을 면제받았다. 셋째, 이 같은 공유 컬렉션은 전자 저널과 데이터베이스 자원에 대한 지속적 접근의 제공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쇄 저널의 보유까지도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고 있음. 즉, 공유 컬렉션에 전자적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주요한 인쇄 저널들의 물리적 컬렉션을 발전시킬 메커니즘을 연구 중이다.

UC 시스템 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CDL을 통해 행사하고 있는 상업적 전자정보에 대한 구매력은 이들로 하여금 이 상업적 전자정보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게 해왔다. 예를 들어, 이들은 “보존조항(preservation clause)”라는 것이 도서관과 출판사 사이의 라이선스 협약에서 반드시 표준적 기능으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 “보존조항”은 도서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독하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캠퍼스 도서관들의 역할

CDL은 캠퍼스 도서관들이 고품질 온라인 정보환경 및 지속적이고 상호 운용가능한 디지털 컬렉션과 발견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 도구 및 전문성의 소스 역할을 한다.

라. CDL의 eScholarship 프로그램

UC 도서관들은 CDL의 e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모드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UC 교직원들이 프리프린트, 연구보고서, 논문, 단행본, 학술 저널, 그리고 그들의 연구 및 교육의 기타 산물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배포하는 저장소(repository)를 구성하고, 온라인 심사(peer review)를 가능하게 하고 촉진한다.

16) University of California, May 2003b. “Report to the Collection Management Planning Group(CMPG) on Developing a Shared Collection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pared by the CMPG Steering Committee. Draft.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online] [Access 2005.5.4]

마. 응용 연구의 수행

CDL은 UC 도서관들, 컴퓨터학과 및 문헌정보학 대학원들과 협력하여 상기한 기반구조의 발전 및 고품질 캠퍼스 기반 온라인 콜렉션과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및 국제 협회와 이니셔티브들에 적극 참여하여 리더 역할을 감당한다. UC 도서관 시스템의 전략적 발전방향은 사실상 이들 특정한 대학도서관 시스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도전, 혹은 위기에 직면한 대학도서관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UC 도서관 시스템은 'Systemwide Strategic Directions'에 따라 다각적 프로젝트들을 구체적 마스터 플랜을 통해 구상 혹은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UC의 전자자원 구축의 일부로서 입수 되는 인쇄저널 카피의 공유 아카이브 구축, 정부정보의 공유 콜렉션 및 JSTOR 프린트 리퍼지토리 구축, 자원관리, 발견과 이용을 확장시키기 위해 서지데이터의 생성, 조작, 교환과 공유를 촉진하는 공유 서비스에 우선순위 부여, 전자자원관리 시스템(Electronic Resources Management System)의 공동개발 추진,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서비스를 교육자료 기술과 통합하는 등의 프로젝트들이 있다.¹⁷⁾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표적 공유시설인 Regional Library Facilities(RLF)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반에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UC 버클리 캠퍼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UCLA 캠퍼스에 각각 설치하여, 1990년대 초반에 대폭 확장하였으며, 2004년에 하나를 더 완성하도록 하였다. 두개의 RLF가 2002-03년 현재 천만 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소장정보는 MELVYL에 포함되어 있으며, 콜렉션은 별치되어 있지만 모든 캠퍼스의 운영과 서비스에 완전히 통합되어 광범히 사용되고 있다.¹⁸⁾

2. 영국

영국에서는 고등교육 및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존 메이저의 보수 정권하에 시작된 국가가 조정하는 주요한 이니셔티브들이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하에서도 계속되고 연장되고 있다.¹⁹⁾ 1993년 영국 고등교육 재정부원 위원회(UK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s)는 영국의 대학도서관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 리뷰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였고, 미래의 요구와 발전에 대한 권장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브라이언 폴렛(Brian Follett) 경의 이름을 따서 '폴렛 보고서(Follett Report)'²⁰⁾라고 불리고 있는데, 1990년대 초반 영국의 대

17)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Master Planning Project List, Updated August 3, 2004.

18) University of California, May 2003b, 전계자료.

19) Steele, 2000, 전계자료.

20) "The Follett Report, 1993." Joint Funding Council's Libraries Review Group: Report, December 1993. A Report for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Scottish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학도서관이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에 대하여 광범하게 살펴보았다.²¹⁾ 이 '폴렛 보고서'의 권장사항들을 받아들인 결과는 여러 방면에 반영되었다. 우선 새로운 도서관 건물 을 위해 오천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Elib 프로그램에 사천오백만 파운드, 대학도서관의 연구 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제도를 리뷰하도록 연구지원 도서관 프로그램(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 RSLP)을 구성하고 2000-2002년 사이에 삼천만 파운드를 제공하는 등 계속해서 추가적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기관들이 정보전략(단순히 IT 전략이 아님)을 발전 시키기 위한 요구조건을 갖도록 장려하는 등,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발전방향을 다각도에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적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다:

- 전자도서관 프로그램(Electronic Libraries Program, eLib)

Electronic Libraries Program(eLib)은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고등 교육 재정지원 위원회 소속)가 전자정보위원회(Committee on Electronic Information, CEI)를 통하여 재정 지원함으로써 1995년에 시작되었고, Hybrid Library Program과 같은 여러 프로젝트 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세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 디지털 혹은 가상 도서관 프로젝트들 및 영국의 전자도서관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발전에서 온 기술들, 도서관에 이미 있는 전자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영국 지역의 물리적 도서관들의 역사적 기능을 한데 가져오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 영역의 목표는 잘 조직된, 접근 가능한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위해 가장 적절한 실행방식과 모델의 예를 제공하는 것이다.

- 국가 사이트 라이선스 프로그램(National Site License Programs)

곽동철 등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대학도서관이 직 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심각한 것은 자료 가격의 상승과 도서관의 구매력의 상실, 특히 전자저널의 입수와 관리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으로 국가 전자 사이트 라이선싱 이니셔티브(National Electronic Site Licensing Initiative, NESLI)를 구성하여 영국 내 고등교육기관의 전자저널 협상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있다. NESLI는 고등교육에 적합한 일단의 전자저널 패키지들을 선정하고, 계약하여, 정기적 기반으로 도서관들에 제공한다. 도서관들은 재정적 이익을 적절히 받아들이고, 표준 NESLI 계약을 신뢰함 으으로써 개별 도서관들의 협상 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²⁾

NESLI는 JISC가 1996년-1998년 동안 네 개의 주요 출판사, 즉, Academic Press, Blackwells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Wales, Department of Education for Northern Ireland.

21) Steele, 2000. 전계자료.

22) Dolphin and Brophy, 2002. 전계자료.

Science, Blackwells Publishers,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과 시험적으로 파일로트 사이트 라이선스를 확립한 데서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결과로서 1999년 1월에 전면적 국가 사이트 라이선싱 이니셔티브가 확립되었고, 전자저널에 대한 접근을 위해 영국의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를 위해 협상을 조정하기 위한 관리 에이전트가 임명되었다. 이것은 이미 대량구입(bulk purchasing)에 따른 비용절감과 모든 출판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라이선스의 관리 편리성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0년에 있었던 리뷰에 따르면, 이 이니셔티브(NESLI)는 전자저널의 광범한 제공과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가기반으로 모델 라이선스가 도입될 수 있고, 인증 문제들도 해결됨에 따라, NESLI의 경험은 협력접근의 가치를 증명하였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개별적 지역 도서관 컨소시엄 등 상이한 협상 모델들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²³⁾

• 분산 국가 전자자원(Distributed National Electronic Resource, DNER)

JISC의 오개년 전략(1996-2001)은 '분산 국가 전자자원(Distributed National Electronic Resource, DNER)'의 지속적 발전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JISC는 전자정보위원회(CEI)를 통하여 네트워크된 정보자원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DNER 프로그램은 급속한 기술적 및 교육적 변동, 정보산업의 경제성에 관련된 불확실성의 시기에, 고등교육이 이용할 수 있는 광범한 네트워크된 전자정보자원의 이점을 모든 영역의 전공분야 및 모든 유형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부문 전체(sector-wide)에 미치는 이니셔티브이다. DNER를 통해서 부문 전체가 단체로 행동하면서 보다 낮은 비용, 전략적 파트너쉽 및 국가적으로 집중된 외적 협력의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서비스 제공과 요금부과에 대한 혁신적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

DNER의 특성은 네트워크된 정보는 중앙의 저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기반하고 있다. 즉, 데이터는 많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입수될 것이고, 상이한 방식들로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JISC가 대표로서 데이터를 소장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 및 조직들과 계약을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다. JISC는 따라서 단일 센터를 구축하기보다 일단의 데이터 센터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관들이 상이한 유형의 데이터와 상이한 학문분야를 다루게 될 때, 서로 다른 장점과 전문성의 깊이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현재 고등교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 콘텐츠로서 주로 서지 데이터세트의 형태이고, 특히 과학 및 사회과학에서는 통계와 정량 데이터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 JISC는 또한 텍스트, 문서 및 이미지의 디지털화와 전자저널도 재정지원하고 있다. DNER는 광범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대학원 및 대학의 교수와 학습, 특히 개방 및 원격학습 분야에서의 교수와 학습을 지원하며, 정보 시스템의 관리에도 보다 잘 지원하려는 목표를 갖고 진행되고 있다.

23) Steele, 2000. 전계자료.

- 연구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The 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 RSLP)

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은 '플렛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여 생겨났지만,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틀은 그 다음에 나온, 에딘버러 대학의 부총장인 마이클 앤더슨(Michael Anderson) 교수의 이름을 딴 '앤더슨 보고서(Anderson Report)(1996)'의 결과이다. RSLP는 대학도서관의 연구 컬렉션 개발을 통한 연구지원 기능에 구체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도서관 정보에 대한 전통적 및 새로운 형태의 접근방법을 통합함으로써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에 고용된 연구자들 및 대학원 연구학생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집단들도 연구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연구 기반구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협력과 공유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주요한 소장 도서관들에 대한 접근 지원, 협동 컬렉션 관리 프로젝트, 인문학 및 사회과학 컬렉션을 위한 연구지원, 및 목표를 정한 목록의 소급변환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갖는다. 또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갖고 영국도서관에 연구지원을 위한 가능한 최선의 제도를 촉진하도록 추진하고 있다.²⁴⁾ 즉, RSLP는 첫째, 연구자원에 대한 개인적 접근을 지지하고 확대한다. 둘째, 장서관리를 위한 협력제도를 확장한다. 셋째, 영국의 풍요한 정보자원의 소재에 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중요한 컬렉션을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킨다. 다섯째,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및 조직적 제도를 제공한다.

- 연속간행물 국가종합목록(SUNCAT)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연구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연구의 대표적 결과물 중의 하나는 '연속간행물 국가종합목록(Serials UNion CATalogue, SUNCAT)' 프로젝트이다. 이 SUNCAT 프로젝트는 JISC와 연구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RSLP), 그리고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이 지원하여 2002년에 수행한 영국의 연속간행물 종합목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²⁵⁾의 결과물이다. SUNCAT의 목적은 영국 전역의 국립, 학술도서관, 전문도서관(예를 들어, 학회) 및 주요한 공공도서관들에 소장된 연속간행물을 찾는 핵심적 도구역할을 하고, 또한 대학도서관들이 자기들의 목록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지 레코드의 중앙정보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2003년 2월에 시작되어, 2005년 1월에 공개되었고 현재 Birmingham 대학, Bristol 대학,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Cambridge 대학, Cardiff 대학, Durham 대학, Edinburgh 대학, Oxford 대학 등 영국에서 가장 큰 22개의 대학도서관들(Research Libraries)의 레코드와 CONSER Programme와 ISSN International Network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계속 참가도서관의 수를 늘려

24) Steele, 2000. 전계자료.

25) Information Power Ltd, 2002, Serials Union CATalogue(SUNCAT) Scoping Study, Final Report to JISC, RSLP and the British Library. <<http://www.rslp.ac.uk/circs/2002/suncat.doc>> [online] [Access 2005.11.6]

가고 있으며, 2006년 8월에 전체 도서관으로 확대한 전면적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다.²⁶⁾

SUNCAT의 구축은 모든 정보 링크 이니셔티브의 선행조건은 '고품질(high quality)' 서지레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은 영국의 연구자, 학생들 및 일반대중이 연속간행물 정보에 대한 권위 있는 하나의 출처를 필요로 한다. 둘째, 영국도서관의 인쇄 및 전자형태의 연속간행물 소장에 관한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CONSER과 ISSN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SUNCAT은 따라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세계에서 간행된 연속간행물에 관한 서지정보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연속간행물의 개별 권호(volume, issue)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연속간행물에 대한 접근(access)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직접, 간접적으로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개별 논문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SUNCAT 프로젝트는 종합목록의 서지정보와 링크를 통해 참여도서관들이 각각 소장 인쇄 연속간행물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로 보장하고, 이 목록을 국가의 컬렉션 관리 및 개발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연속간행물에 대한 국가적 집중성을 제공하고, 국제표준과 서지 영역에서 영국을 대표하는 중심체 역할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⁷⁾ 결국 SUNCAT의 구축은 연속간행물에 대한 접근이 연구, 교수, 학습에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고품질 접근정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도서관들이 보유한 인쇄 및 전자저널을 국가 전체가 효율적, 경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캠브리지 대학, 에딘버러 대학, 런던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일곱 개 대규모 대학들이 구성한 대학연구도서관 컨소시엄(Consortium of University Research Libraries, CURL)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목록으로 COPAC(CURL Online Public Access Catalogue)을 구축하였다.²⁸⁾ COPAC 프로젝트 역시 JISC의 지원을 받았다. COPAC의 레코드는 80% 이상이 단행본으로, 연속간행물 목록인 SUNCAT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도서관 장서규모가 큰 주요한 대학들이 공유목록을 발전시키고, 회원이 아닌 대학도서관들에게도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학술연구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공유노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지역 및 국가 컨소시엄

영국의 대학도서관들은 대부분 이용자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도록 디자인된

26) United Kingdom, Edina, 2005, Description of SUNCAT Pilit Project, SUNCAT Phase One Contributing Libraries, <<http://edina.ac.uk/suncat/libraries.shtml>> [online] [Access 2005.11.6]

27) Information Power Ltd, 2002, 전계자료.

28) Cousins, Shirley Anne, 1997, "COPAC: The New National OPAC Service Based on the CURL Database." Program, 31(10).

지역 혹은 국가적 컨소시엄에 가입하고 있다. 런던 지역의 40여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기구인 M25 Consortium of Higher Education Libraries가 개발한 탐색도구인 InforM25, 학생이나 연구자를 위해 도서관 접근을 개선시키도록 디자인된 체제인 Consortium of Academic Libraries in Manchester(CALIM), LASH(Library Access Sunderland schEme) 등이 기관 간 상호대차와 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파트타임 학생들의 수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이들이 적어도 세 개까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100여개 기관들이 모인 U.K. Libraries Plus, 이들이 자기의 모교가 아닌 곳에서 컴퓨터와 전자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파일럿 스킴인 U.K. Computers Plus 등이 시행되고 있다.²⁹⁾

3. 호주

앞 절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호주의 도서관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재정지원의 축소와 더불어 그들이 수입된 국제적 문헌에 대단히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원공유를 위해 도서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fundamental)”인 조건이라고 인식해 왔다.³⁰⁾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는 그동안 호주정부총장회의(Australian Vice-chancellors' Committee, AVCC) 회원인 고등교육기관의 대학도서관장들로 구성된 호주 대학도서관장 위원회(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이하 CAUL이라 부름)가 육성한 자원공유 및 기타 협력 프로그램들에 대한 접근이 고등교육 부분에 중대한 혜택을 주어왔고,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이 자료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인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왔지만, 실제적으로 획득 비용을 절감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³¹⁾ 그러나 CAUL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어 왔고, 또한 비용 효과적 자원공유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였다. 우선 국가의 정부정책 차원에서 자원 공유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은 AVCC의 이해에 의하여 촉진되었고, 그 가운데 두 가지 대표적 이니셔티브로 국가대출체계(National Borrowing Scheme)와 국가저장소(National Store)를 들 수 있다.

가. 국가대출체계

국가대출체계는 1999년 3월 CAUL이 수립한 ‘행동계획’에서 “2. 국가대학대출체계(national universities borrowing scheme)를 위한 구조를 확립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라”고 한 것

29) Dolphin and Brophy, 2002. 전계자료.

30)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A Report to the RSLP on: Barriers to Resource Sharing Among Higher Education Libraries.

31) ALIA, 2002. 전계자료.

에서 비롯되었다.³²⁾ 이 국가대출체계는 2001년 7월에 처음 출범하였고, 모든 수준의 호주의 모든 대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대학도서관이든 이용할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국가대출체계는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라고 불리며, 2005년 현재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n Defense Force Academy 등 40개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³³⁾ University of Adelaide, Griffith University 등 소수의 대학들은 약간의 등록비(50 호주달러)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가대출체계에서는 당분간 그것을 인정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나. 국가저장소

'Research Resources Australia - National Cooperative Digital & Archive Store'라는 명칭의 국가저장소 역시 1999년 CAUL의 '행동계획'에서 제안되었고,³⁴⁾ 이를 위해 CAVAL Ltd.가 작성한 제안서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함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단행본과 학술지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연구센터(National Information Research Centre)로서 *Australia and New Zealand Research Information Centre(ANZRIC)*을 수립하자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기관의 필요성은 도서관들이 직면한 재정적 압박과 경쟁적 서비스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저장소는 University of Sydney의 저장소, University of Adelaide와 Flinders University가 공유한 Joint Library Store, 일곱 개의 Victoria 지역의 대학들과 State Library of Victoria가 공유한 CARM Centre Store와 같은 기존의 지역 규모 저장소들 및 당시 Western Australia와 Queensland에서 구상 중이던 저장소를 모델로 하여 추진되었다.

이 국가저장소의 목적은 첫째, 개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데 주요한 문제점인 공간 부족, 도서관과 창고 간 자료 이동 및 이동자료 식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신속한 접근에 대한 필요성 등을 국가적 협력체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인쇄 자료들이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국가 연구정보자원의 핵심적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도서관이

32)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CAUL). July 1999. "Strategic Plan 1999-2005 and Action Plan 1999."

<http://www.anu.edu.au/caul/caul-doc/strpln99final.html>: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 November 2000. "Action for 1999 from the Strategic Plan 1999-2005."

<http://www.anu.edu.au/caul/caul-doc/strpln99finalA.html> [online] [Access 2005.10.1]

33)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CAUL). 2005.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Participating Universities." [online] [Access 2005.11.6]

<http://www.anu.edu.au/caul/ula/participants.html>

34)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CAUL). 2000. "Research Resources Australia -- National Cooperative Digital & Archive Store."

<http://www.anu.edu.au/caul/caul-doc/store.html> [online] [Access 2005.11.6]

방대한 자료저장소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타당하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예를 들어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과 같이 저장공간의 여력이 있는 도서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자주 사용되지 않는 중요 인쇄자료들의 경제적 저장, 보존 및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이다.³⁵⁾

이러한 국가적 규모의 저장소를 시행하는 것은 저장소가 복수의 장소들과 복수의 소유자들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만 달성되었다. 비록 각각의 물리적 저장소의 소유권은 특정한 대학 내에 있게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은 국가저장소에 속한다. 이 '호주의 최후의 카피(the last copy in Australia)'인 자료는 동의된 기간 동안 어떤 대학에서든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호주의 작은 대학들은 이 방대한 규모의 잘 이용되지 않은 연구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음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았다.³⁶⁾

다. Janus 프로젝트

Janus 프로젝트는 전자 및 인쇄자원의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해, AVCC, 호주학술원(the Academies), CAUL, CSIRO, CAUDIT 및 호주국립도서관이 정부의 지원으로 Janus Centre라고 불리는 호주의 도서관과 정보센터들의 국가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Janus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1995년 CAUL과 호주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이 Minister for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DEETYA)의 재정지원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주제 기반 인쇄 및 전자자원의 가상도서관 발전"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이미 이십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구독료의 상승, 급격히 저하된 환율 및 대학 내의 재정적 압박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이 선진국의 교수와 연구 프로그램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그 배경이 있다.³⁷⁾ 이 프로젝트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중앙 재정지원이 제한되었고, 도서관들은 이 체제를 설정할 추가적 비용을 감당할 동기가 부여되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여겨진다.³⁸⁾

라. 대학도서관 평가와 업무 지침 개발

호주 대학도서관들은 대학도서관의 위기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 평가와 업무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왜냐 하면, 변화하는 대학과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도서관들도 적절한 품질

35) CAVAL Ltd. 2002. "The Case for a National Information Research Centre: Toward a Business Plan." <http://www.anu.edu.au/caul/caul-doc/store-caval.doc> [online] [Access 2005.11.6]

36)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전계자료.

37)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CAUL). 1999. "Janus Collaborative Information Centres." <http://www.anu.edu.au/caul/janus/proposal.htm> [online] [Access 2005.11.6]

38)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전계자료.

구조를 이행하고, 벤치마킹과 성과의 평가와 같은 품질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외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 못하였음을 절감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 정부가 최근에 Australian Quality Agency를 만들어 대학 성과를 감사하는 데 대하여, 기관들이 별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어딘가에서 이미 수행된 업무를 알지 못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관 상황에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고, 적합한가를 조사하는 상당한 작업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노력의 중복을 회피하도록, 최적의 실행방식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핸드북 “*Best Practice Handbook for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es*”을 발간하였다. 연방정부가 지원한 이 핸드북은 벤치마킹, 성과측정, 품질구조, 훈련 및 관련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며, 대학도서관들이 최적의 실행방식을 채택하기 위하여 참조해야 할 사항, 해외 및 호주 국내의 주요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가 CEETYA Evaluations and Investigations Program(EIP) 아래에 호주 대학도서관들에서 최적의 실행방식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Best Practice for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es*”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CAUL은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이며 일관성 있는 데이터의 수집, 비교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³⁹⁾

마. 그 밖의 도서관 협력 전략

호주의 대학도서관들은 작지만 상당히 다양한 부문에서 국가적 규모로 타당성을 갖는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력이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 일상적 장애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 요구를 많은 부문에서 적절히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된다.⁴⁰⁾ 이를테면, 첫째,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상호대차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LIDDAS(Local Inter-Lending and Document Delivery Administr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구입하는 협력활동을 수행하였다. 둘째,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National Bibliographic Database)에 목록 데이터를 기여함으로써 전국의 대학자원의 소재정보를 제공하였다. 셋째, 열아홉 개 도서관들이 협력하여 호주 디지털 학위논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호주의 대학에서 인증된 학위논문들에 대한 즉각적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넷째, 1993년부터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컨소시엄 기반으로 구입하였다. 초기에는 National Priority(Reserve) Fund의 지원으로 시작하였으나, 1996년부터 전적으로 도서관의 재정으로 구입하며, CAUL Office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 CAUL을 통한 컨소시엄 구매는 여덟 개의 뉴질랜드 대학도서관들, 그리고 나중에 그 밖에 호주, 뉴질랜드, 피지의 정부연

39) Wilson, Anne, and Pitman, Leanne. 2002. *Best Practice Handbook for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es*. (Australia. 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http://www.dest.gov.au/archive/highered/eippubs/eip00_10/00_10.pdf> [Online] [Access 2005.9.27]

40)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전계자료.

구기관과 고등교육기관들로도 확대되었다. 다섯째, 호주학술연구도서관 네트워크(Australian Academic Research Library Network, AARLIN)은 호주연구위원회(ARC)와 연방교육과학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DEST)가 재정을 지원하여 구축한 프로젝트이다. 현재 La Trobe University Library, Monash University Library, Victoria University Library가 모기관이 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열여덟 개의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목적은 고등교육기관들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통합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파일럿 단계에 있지만, AARLIN 포털은 중앙화된 인증, 이용자 요구 맞춤(user-customization) 및 간단한 push and pull 기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OPAC, 인용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 KINETICA, 주제 게이트웨이, 및 기타 검색 엔진 등을 타겟으로 하는 동시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전자자원에 대한 딥 링크, 문헌제공 요청의 가속화, 및 자원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전문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개선시키고 있다. AARLIN은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요구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공유를 확대하며, 포털 기능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⁴¹⁾

4. 캐나다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은 호주와 매우 유사한 여러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들인 고급두뇌가 해외, 특히 미국으로 유출된다든지, 실제로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든지, 학술정보자원의 주요한 공급자인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 캐나다 달러의 환율이 낮아짐으로써 구매력이 상실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다. 또한 연속간행물의 가격 급등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절박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대학도서관의 발전,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중심을 구성하고 있는 학술연구 기반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캐나다의 국가 차원의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가. 캐나다 혁신재단(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CFI)

캐나다 혁신재단은 1997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캐나다의 연구기반구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독립법인으로, 캐나다의 대학 및 대학교, 연구병원, 비영리연구기관들로 하여금 캐나다에 이로운 세계수준의 연구와 기술개발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사명을 갖고 있다.⁴²⁾ CFI는 1997년 이래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하여 3.65억 캐나다인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프로젝트의 기반구조를 위해 40%까

41) AARLIN. Australian Academic & Research Library Network.
 <<http://www.latrobe.edu.au/arlin/>> [Online] [Access 2005.11.7]

42) Canada Foundation for Innovation, 2005. "2004-2005 Annual Report."
 <http://www.innovation.ca/publications/annual/annual05_e.pdf> [Online] [Access 2005.11.26]

지 지원하였고, 공공, 민간 및 자원부문의 파트너들과 함께 자격이 있는 연구기관들에게 2010년까지 모두 1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다. CFI는 2000년부터 캐나다 대학도서관들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인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gram(CNSLP)를 지원하였다.

나. 캐나다 국가 사이트 라이선싱 프로그램(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gram. 이하 CNSLP라 부름)

CNSLP는 캐나다연방정부기관인 캐나다 혁신재단과 대학도서관들 및 여러 지역 프로그램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수의 주요한 전자저널 컬렉션의 사이트 라이선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작했던 프로그램이다. 모두 64개의 대학도서관들이 참여하고 그 본부를 University of Ottawa에 두고 있었던 CNSLP의 목적은 캐나다의 학술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구문헌의 질, 범위 및 깊이를 증대시키고, 전자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과 제공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콘텐츠에 대한 확장되고도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³⁾ CNSLP는 2000년에 캐나다 혁신재단에게서 2천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고, 64개 참여 대학들과 9개 지방정부 및 애크랜틱 캐나다 기회국(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로부터 3천만 달러의 매칭 펀드를 받아 3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⁴⁴⁾

CNSLP는 과학, 보건, 공학 및 환경 분야의 전자 학술저널과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라이선스 하기 위해 협력적, 범국가적 대학도서관 이니셔티브를 통한 노력을 수행하며, 학술계에 이 콘텐츠에 대한 전자적 데스크탑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CNSLP는 캐나다 학술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콘텐츠와 활용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연구자들을 세계적 정보저장소와 연결하는 능력을 증대시켜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캐나다 학술연구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연구자원에 대한 공공투자의 회수를 증대시키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국가적 잠재력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⁴⁵⁾ 이 프로젝트를 통해 2,200여 종 이상의 학술저널과 주요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를 650,000여 대학연구자들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였다.

2005년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ARL)의 보고서는 CNSLP가 인쇄형태에서 전자형태로 전환하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매년 간행되는 CARL 대학도서관들의 통계에 따르면, 2000-01년 연속간행물 전체 예산 가운데 22%가 전자저널에 할당되고, 28개 도서관들이 구독하는 490,174종의 연속간행물들 가운데 26.3%인 128,773종이 전자형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⁶⁾ 한편 캐나다

43) Steele. 2000. 전계자료.

44)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2005. "A Brief Chronology of the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http://researchknowledge.ca/about/history/>> [Online] [Access 2005.11.26]

45) Steele. 2000. 전계자료.

46) CARL. 2005. "Towards an Integrated Knowledge Ecosystem: A Canadian Research Strategy." A Report

도서관협회(CAL)의 하부조직인 캐나다 대학도서관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CACUL)는 2002년 CACUL Innovation Achievement Award를 CNSLP에 수여함으로써⁴⁷⁾ 디지털 학술 연구자원의 공유와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CNSLP는 2001년에는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Business Officers(CAUBO) National First Prize, Quality and Productivity Awards Program를 수상하였다. CNSLP는 2004년 4월 1일에 캐나다 연구지식 네트워크(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CRKN)로 새롭게 출범하였다.⁴⁸⁾

다. 캐나다 연구지식 네트워크(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이하 CRKN이라 부름)

CRKN는 캐나다 전국의 학술연구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형태로 된 학술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4년 출범하였다. CRKN은 2000년부터 3년간 진행되었던 CNSLP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하여 캐나다 대학들을 위한 비영리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CRKN 수립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캐나다의 대학 연구 커뮤니티가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콘텐츠의 질, 넓이와 깊이를 확장시킨다. 둘째, 디지털 자료와 부가가치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화된 접근의 새로운 모델을 통하여 그 가치를 최대화한다. 그리고 셋째, 캐나다의 대학들의 구매력과 영향력을 집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킨다.⁴⁹⁾

CRKN은 2000년 CNSLP가 개발한 “출판사와 무관한 모델 라이선스(publisher-free model license)”와 “혁신적 조달과정(innovative procurement process)”를 통해 회원기관들에게 전자저널을 인쇄저널과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선택권, 전자저널 구독에 더 낮은 가격, 전자저널 가격의 매년 증가율의 축소, 환율등락에 대한 보호 및 다년간 계약 등과 같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⁵⁰⁾ 2004년 CRKN 출범 당시 회원기관은 CNSLP와 마찬가지로 University of Ottaw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Victoria 등 64개의 캐나다 대학들로 구성되어

Submitted to the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 L'Association des bibliothèques de recherche du Canada(CARL/ABRC).

<http://www.kdstudy.ca/2005/appendix2.pdf> [Online] [Access 2005.11.26]

47) University of Ottawa, 2002.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wins CACUL Innovation Achievement Award.”

<http://www.uottawa.ca/library/cnslp/news/CACULPR-eng.htm> [Online] [Access 2005.11.26]

48)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Website.

<http://researchknowledge.ca/about/> [Online] [Access 2005.11.26]

49)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By-Law Number One Being the General By-Law Regulating the Transaction of the Business and Affairs of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http://researchknowledge.ca/about/crkn/CRKN-bylaws-1Apr04.doc> [Online] [Access 2005.11.26]

50)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Initiatives.”

<http://researchknowledge.ca/wiki/initiatives/> [Online] [Access 2005.11.26]

있다. 또한 CRKN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은⁵¹⁾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AMS), Elsevier Science,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ISI),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IOP), Royal Society of Chemistry, Springer-Verlag 등이다. 이들 가운데 ACS가 32종의 전자저널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고, 187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500,000여 논문에 대한 ACS Journal Archives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AMS는 180여만 건의 수학연구에 대한 색인초록과 192,000건 이상의 논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MathSciNet을 제공하며, 최대규모의 과학기술의학 콘텐츠 제공자인 Elsevier Science는 삼십여 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를 포괄하는 Academic Press IDEAL online resource library로 205 전자저널에 대한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는 등, CRKN은 주요한 저널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의 소스가 되고 있다.

라. 혁신기금(Innovation Fund)과 기술통합계획(Technology Integration Plan)

캐나다는 고등교육의 책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고, 각기 지리적으로 먼 거리로 분리된 지역적 환경뿐만 아니라 및 국가의 역사 및 문화적 유산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발전되어 왔다.⁵²⁾ 또한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도서관 발전정책과 중앙의 주관 부서가 없이 운영된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⁵³⁾ 그러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정보기술의 발전이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주 및 지방정부들은 점차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는 혁신기금을 통하여, 고등교육 부문에서 36개의 프로젝트들에 모두 4,881,986 캐나다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컴퓨터 지원 학습 및 웹 코스웨어와 같은 멀티미디어 자원의 입수와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혁신기금은 고등교육기관들로 하여금 개선된 기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버타에는 3년 동안 삼천만 캐나다 달러를 재정지원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습자, 교수 및 커리큘럼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지원, 확대 및 개선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알버타의 고등교육기관들은 각각 기술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보기술을 교수와 학습에 통합시킬 때 기관들이 갖는 요구에 관하여 정부당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네 개의 서부지역 주들에서 13개 대학이 도서관자원의 전자적 공유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교수 및 학생들로 하여금 이 지역 내에서 공유된 7,000여 종의 저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다룬

51) 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 "Participating Publishers."

<http://researchknowledge.ca/participants/publishers/> [Online] [Access 2005.11.26]

52)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of Canada. 1997.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http://www.cmec.ca/publications/edtech-en.stm#summary> [Online] [cited 2005.11.20]

53)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November 21, 2001. "CLA launches Campaign for Canada's Libraries." <http://www.cla.ca/issues/campaign.htm> [Online] [cited 2005.11.25]

로드 하고, 대학도서관 어디에서든 목록된 자료들을 조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로 중복이 줄어들었고, 새로운 수서에 대한 자금의 여유를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⁵⁴⁾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0년대 이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라 두드러지게 인식된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한 전략적 발전방향을 살펴 보았다. 각 나라의 고등교육 제반 환경이 상이하지만,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목표와 체제가 수정되었고, 대학교육의 대중화, 전자화 및 국제화, 대학 커뮤니티 구성원의 변화와 같은 상황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대학도서관들은 또한 예산의 축소, 학술정보자원의 가격 급등과 도서관의 구매력 감소,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정보 기반구조의 요구, 이용자 요구 및 태도의 변화 등과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각 나라의 상황에 따른 전략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이들이 추진한 전략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원공유, 공동목록, 공유저장시설 등과 같이 몇 가지 공통적 키워드들을 추출할 수 있고, 이들은 국내의 대학도서관들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자원공유

대학도서관들 간 자원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로 “심층적 자원공유(deep resource sharing)”가 어렵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⁵⁵⁾ 그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UC 도서관 시스템이 2004년 개교한 Merced 캠퍼스까지 포함한 열 개의 캠퍼스 도서관들이 소장한 모든 정보자원이 하나의 가상 컬렉션을 구성하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동시에 공유시설, 공유 서비스,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속적 접근 등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별개의 대학도서관들 혹은 다른 유형의 대학도서관 그룹들보다 협력과 공유라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기에 유리한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캠퍼스가 매우 고유한 특성과 교육목표를 갖고 발전해 왔고, 그에 따라 각기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54)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of Canada. 1997. “Development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in Education.” <http://www.cmec.ca/publications/edtech-en.stm#summary> [Online] [Access 2005.11.20]

55) The Higher Education Consultancy Group and CHEMS Consulting. January 2002. A Report to the RSLP on: Barriers to Resource Sharing Among Higher Education Libraries.

여러 형태의 자원공유를 위해 보다 확대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년 저널가격이 두 자리 이상으로 인상되는 것, 도서 생산이 증대되는데 도서관 구매력이 저하되는 것, 출판사들의 합병이 더 높은 가격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출판계의 경제 변동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여, 그들의 막대한 구매력 때문에 생겨나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실제적인 가격조정을 위하여 사용하고,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출판사들을 선호하고, 교수들에게 이에 대한 데이터와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책을 공통적으로 세우고 있다. 또한 UC 도서관 전체가 “위대한 컬렉션(Great Collections)”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로컬 컬렉션에서 탁월성을 확장하고,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기회를 발견 및 포착하고, 자료를 소장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공간의 비용과 제한을 해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 시스템 포괄적인 자료 선정을 통해 폭과 깊이를 증대시키고, 공동투자하며, 디지털 및 인쇄 컬렉션을 공유하고, 지역 저장 시설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6) 이들의 노력은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CDL)이라는 매우 구체적이며 혁신적인 서비스 형태로 나타났고, 그밖에도 다각적 측면에서 각 도서관의 독립성과 고유성에 병행한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자원공유의 선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공동목록

자원공유를 위한 전제조건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소재와 접근 가능성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UC 시스템 도서관들이 예를 들어, UCLA는 ORION이라는 자관 OPAC을 유지하고 있고, UC San Diego는 ROGER⁵⁷⁾라는 자관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UC San Francisco가 GALEN이라는 자관 목록 시스템⁵⁸⁾을 갖고 있으면서도, Melvyl⁵⁹⁾이라는 UC 도서관과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서관들의 공동목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나, 영국이 자원공유를 위해 SUNCAT을 구축하고 ‘고품질’ 서지 레코드를 통한 정보자원의 소재 및 접근 가능성의 파악에 우선순위를 둔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이다. 또한 영국에서 대학도서관들이 COPAC을 구축하면서 COPAC 데이터베이스에 서지 레코드를 제공하는 대규모 연구도서관들이 각기 고유하게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오래된 문서들, 전문 컬렉션 및 외국어 자료 컬렉션과 같은 정보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목표⁵⁹⁾ 또한 같은 맥락에서이다.

56)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Libraries & Scholarly Communication.”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scholarly/>〉[Online] [Access 2006.2.7]

57)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Roger. UCSD Libraries Catalog.” 〈<http://roger.ucsd.edu/>〉

58)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GALEN. Digital Library of UCSF.”

〈<http://ucsfcat.library.ucsf.edu/>〉

59) Cousins. 1997. 전계논문..

다. 공유저장시설

공유저장시설의 대표적 사례로는 UC 도서관의 Regional Library Facilities와 호주의 국가저장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공유저장시설은 아직도 연구정보자원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인쇄 자료에 대한 수요가 비록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이들의 수집, 보존,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별 도서관들이 각기 인쇄 컬렉션을 유지하기보다 국가적 혹은 지역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 저장시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철저한 공유의 개념에 기반하여 보존과 접근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이 같은 공유저장시설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도서관의 물리적 자료 소장에 대한 집착이 개입된다면, 적절히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장서의 품질과 깊이에 대한 검증보다, 물리적 개체의 수치 및 특정 자료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에 의존한다면, 이 같은 시설에 자관 소유 자료를 이관하고, 공유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의 공유저장시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공동협상과 구매

계속 급등하는 학술저널의 가격에서 보여지는 다국적 출판사들의 독점과 전횡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상과 구매의 필요성은 모든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에서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다. UC 도서관의 CDL, 영국의 NESLI, 캐나다의 CRKN, 호주의 CAUL 컨소시엄 등은 이 같은 공동협상과 구매를 통해 구독비용의 절감, 최신 학술정보자원의 입수, 보존대상 자원에 대한 접근권한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호주처럼 해외의 학술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환차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개별 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개별 저널을 입수하기보다, 국가 전체가 공유할 공동자산으로서의 학술정보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학술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

한편 UC 도서관이 CDL의 eScholarship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도하는 것은 단순한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 이상의 것이다. UC 도서관처럼 학술정보자원의 시장에서 구매력이 큰 주체는 그만큼 구매협상의 조건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욱이 UC의 교수 및 연구 인력이 학술정보의 주요한 생산자로서 막대한 힘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UC 대학 커뮤니티와 연합하여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다 거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학도서관이 주변의 환경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교수, 대학의 관리자와 출판부, UCLA와 버클리에 있는 문헌정보학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계, 전국의 대학도서관 유관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학술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체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독점적 위치에 있는 상

업적 출판사를 견제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영어권 주요국가의 대학도서관들의 발전전략에 반영된 다양한 사례들의 일부는 국내의 대학도서관들도 전자저널의 공동구매나 공동목록의 구축과 유지 등과 같은 형태로 이미 시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라고 해도, 이 나라들의 대학도서관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혹은 제도적 상황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성과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해외학술정보의 소비자이며 의존자일 뿐인 우리나라의 대학과 대학도서관들이 정보의 생산자이며 학술 커뮤니티의 리더인 다른 나라 대학과 대학도서관들이 하는 역할, 특히 UC 도서관들이 주도하는 변혁과 같은 적극적 대책은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주요한 사례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을 뿐, 각 사례의 성공 정도 혹은 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또한 동일하게 인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시도한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차이점 혹은 공통점 등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이 같은 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 비교분석은 차후에 시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